

2010.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0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0.10.26	대전MBC 대회의실	10/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2명) 명단: 여운철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헌 전략기획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5	8	-	3	16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5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건	
보도	<뉴스데스크> 도입부 주요 뉴스 톤이 불안정하다는 지적	여성 앵커로 하여금 주요 뉴스 톤을 조금 낮추고 안정적으로 하게끔 시정 조치함	'10.9월
보도	자율형 공립고, 사립고에 대한 자세한 보도 필요성 제기	10/2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와 사립고에 대한 뉴스 보도함	'10.9월
보도	<전국시대> 기자 출연하는 뉴스브리핑 전달력, 이해도 높아 뉴스에 도입 추천	10/18일부터 라디오 <뉴스초점> 신설해 기자들이 출연해 그날의 이슈를 설명함	'10.7월
교양	<시사분석> 도입부 자료화면 활용 요청	11월 개편부터 주제와 관련된 영상 자료화면을 도입부에 편집함	'10.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기타	○ 가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보면 개개인의 역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인력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재영 위원)	○ 경영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신규 사원 채용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 창사특집 다큐 3부작 <백제> 호평, 하지만 전문가 성비를 살펴보니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성차별을 느낄 수 있어 조정 필요해 보인다. (김재영 위원)	○ 백제사 연구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보니 남성 전문가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성비 균형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용
보도	○ 10/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모래조각 축제 개막 리포트에서 작가는 물론, 관람객까지 타사 보도와 똑같았다. (방기봉 위원)	○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수용
방송편성	○ 겨울철 복지소외계층의 삶을 조명해보는 등 사회적 약자 고려한 프로그램 방송 요청한다. (방기봉 위원)	○ 11월 개편으로 신설된 <아침이 좋다>에서 매주 화요일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수용
보도	○ 지역과 관련된 국정감사 내용 적극 보도해달라. (신현대 위원)	○ 국정감사 관련 보도를 뉴스시간에 방송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관심있는 내용은 기사를 국회로 보내 보도할 계획입니다.	수용
기타	○ 인적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역량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충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벽 위원)	○ 현재 정규직이 8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신규 사원 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 라디오 <금강보호 캠페인> ‘어름치 치어’의 발음이 부정확해 ‘어름 치치어’로 들린다. (유치벽 위원)	○ 해당 아나운서에게 관련 내용 전달해 띄어쓰기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용
교양	○ 10/1일 <시사플러스> 대안학교에 관한 방송 내용 좋았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장점만 부각돼 자칫 환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옥 위원)	○ 공교육의 틀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과 부모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어 교육여건의 다양화 측면에서 다뤘으며 앞으로는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기타	○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가 빨리 업데이트되길 바란다. (김경숙 위원)	○ 담당부서인 전산실에 내용을 전달해 익일 업데이트 원칙을 충실히 지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용
교양	○ 창사특집 다큐 <백제> 역사교과서로도 훌륭한 수준인데 후속 활용계획이 궁금하다. 외국에 방영 계획은 없나? (김경숙 위원)	○ 현재 일어와 중국어, 영어 더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 아사히 방송 계열 자매방송사인 KAB를 통해 현지 방영을 고려 중입니다.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 10/8일 <시사플러스>의 내용과 형식, 인터뷰이까지 같은 주제를 다룬 KBS 시사터치Q와 중복돼 아쉽다. (김경숙 위원)	○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제한돼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교양	○ 라디오 <시대공감>에서 외부 전화 인터뷰 시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고 진행자의 전달력도 약하다. (안정선 위원)	○ 진행자의 전달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술국에서도 전화 연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오디오 음폭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교양	○ 창사특집 다큐 <백제> 나레이션을 윤도현씨가 맡았는데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사료도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김진국 위원)	○ 윤도현씨가 역사의식도 깊고 다양한 계층에서 팬들이 많아 나레이터로 선택했습니다.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 <시사플러스>가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담길 바란다. (김진국 위원)	○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양쪽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 대백제전 관련 뉴스 보며 취재진 노고 격려해주고 싶다. 대백제전은 외형적으로 성공했지만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백제문화단지의 활용안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영광 위원)	○ 백제문화단지 활용안 등 후속 보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용
보도	○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관련해 지방정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국정감사 내용으로만 보도돼 아쉬움이 컸다. (김영광 위원)	○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인 특혜 의혹이 적발되지 않아 국정감사 내용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 <뉴스투데이>에서 조폭의 문신이 화면에 너무 길게 방송돼 혐오감이 컸다. (장인순 위원)	○ 화면 편집 시 유의하겠습니다.	수용